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12₂₀₁₆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마가복음 · 누가복음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Galatians 2:20)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12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71 영어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2016 Dec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17교구	2 9교구	3 전교인
4 전교인	5 전교인	6 18교구	7 2교구	8 7교구	9 5교구	10 전교인
11 전교인	12 전교인	13 10교구	14 14교구	15 11교구	16 1교구	17 전교인
18 전교인	19 전교인	20 12교구	21 4교구 성탄 축하 찬양의 밤	22 13교구	23 3교구 성탄절 기념 음악회	24 전교인
25 전교인 성탄절 제6차 학습·세례식	26 전교인	27 15교구	28 6교구	29 16교구	30 8교구	31 전교인

교회 주요 일정

12월 21일(수)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2월 23일(금)	성탄절 기념 음악회
12월 25일(주일)	성탄절 / 제6차 학습·세례식

12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에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 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났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여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어떠한 음부의 권세와 이단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시온성과 같은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되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 ④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및 해당 교구 전도, 동역교회 전도 지원 사역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 ⑥ 각 교구와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⑦ 담임목사 청빙위원회가 철저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 ⑧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인도하소서.
- ⑨ 장로·안수집사·권사 피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죽음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택한 모든 백성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이들은 전혀 엉뚱한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모함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감람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맞은편 마을에는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은 창세기 49장 1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유다의 후손인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면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두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에 싸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실 메시아로서, 즉 그리스도로서 입성하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내주가 없으니, 구원을 외치면서도 헛된 구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시의 눈앞에 이익만을 구하는 모양이 되었고, 정치적 메시아의 헛된 구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 기도 제목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신앙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¹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 산 벧 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²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³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⁴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⁵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⁶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

지라 ⁷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⁸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⁹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¹⁰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¹¹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 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매가 전혀 없었던 한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의 말씀과 이 저주의 말씀의 성취는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경고와 훈계를 가져다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무화과나무는 3~4월 전에 꽃을 피웠다가, 3~4월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완전히 무르익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앞에 서셨던 그때는 유월절 명절 전이었기에 3~4월에 해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것도 꽃 열매였습니다. 나뭇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외형은 풍성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이기도하며,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저주를 예고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도착하시자마자 그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에 성전 안에는 엄청난 상권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환전하는 사람들, 짐승을 교환하거나 구입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이익을 차지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만민 곧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영원한 성전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놀라운 선언이기도 합니다.

» 기도 제목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열방의 만민을 품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¹²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¹³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¹⁴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¹⁵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

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며 ¹⁶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하락하지 아니하시고 ¹⁷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¹⁸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¹⁹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우리의 기도가 끊어져 버릴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견고한 쇠심줄이 되기 위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무화과나무는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은 불신의 문을 열고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우리가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으나, 없느냐에 근거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당시 종교지도자들을 충분히 자극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하면 예수님 자신도 답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면서도 백성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세력이 나옵니다. 첫째,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이며, 둘째, 하나님과 신앙을 사칭해 자기 배를 불리는 종교 세력이며, 셋째, 다수를 이루는 대중의 힘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힘도, 대중의 힘도, 종교 세력자들의 힘도 주님의 능력과 권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 주님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힘임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²⁰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²¹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²²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²³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²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²⁵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²⁶ (없음) ²⁷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

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와 ²⁸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²⁹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³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³¹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³²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³³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첫째, 농부들의 '무책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정성으로 포도원을 조성한 주인에게 농부들은 마땅한 소출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농부들의 매우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농부들의 '탐욕'스러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포도원 주인은 농부에게 종을 4번이나 보낼 정도로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만물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어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했던 그간의 역사를 보여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열매 맺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마냥 내버려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118편 22~2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예수님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난 다수의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한 쪽에서는 버린 돌이 되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돌의 모습으로 계십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의 농부가 자신들을 가리켜 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여 해하여고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분노합니다.

>>> 기도 제목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퉁이돌로 인정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되게 하옵소서.

¹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좁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²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³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⁵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 지라 ⁶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⁷ 그 농부들

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⁸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⁹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¹⁰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¹¹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¹²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진리되신 예수님은 당시 종교지도자들과 세 번의 논쟁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에 관하여,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하여, 세 번째는 최고의 계명에 대하여 그리하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쟁에 해당합니다. 진리되신 예수님은 첫 번째 논쟁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초상과 글씨가 새겨진 동전을 말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당시 세금은 단순히 가이사에 대한 납세가 아니라, 가이사의 주권과 통치까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 안에서 제한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임시적으로 인정할 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무한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영원토록 수용해야 합니다.

진리되시는 예수님은 두 번째 논쟁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27절). 두 번째 논쟁에 해당하는 24~27절에서, 예수님은 ‘오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미혹되다’, ‘잘못된 길로 인도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왜곡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점은,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 있음을 뜻합니다. 영원한 삶과 진정한 부활이 있음을 내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나 새 땅에서나,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처럼 주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바른 믿음으로 신앙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¹³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¹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써 하 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 니이까 ¹⁵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¹⁶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¹⁷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라게 여기더라 ¹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¹⁹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

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 이다 ²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²¹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²²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²³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²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²⁵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²⁶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²⁷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본문 마가복음 12:28~44 찬송가 78장

>>> 본문 해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으뜸이 되는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자,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5절을 인용하셔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더불어 동시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확대되어 적용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온전하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고 참된 예배는 정해진 장소에서의 잠깐의 예배에 머문 제한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모든 삶의 순간으로 이어져서 쉽없이 드러지는 산 제사로서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여러 부자들이 헌금 넣는 모습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을 넣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시고, 이 과부의 헌금에 감동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43~44 절). 여기서, ‘생활비 전부’라는 헬라어는 ‘그녀의 삶 전체’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적인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 기도 제목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²⁸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²⁹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³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³¹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³²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³³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³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³⁵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³⁶ 다윗

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³⁷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더라 ³⁸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³⁹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⁴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⁴¹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⁴²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⁴³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⁴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갈 때, 제자 중 한 명이 성전의 웅장한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엄중한 목소리로 성전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감람 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5~6절). 종말에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사칭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은 성도들을 속여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들에게 속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전쟁과 지진, 그리고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7~8절). 이 세 가지는 인간사에 늘 있었지만, 세상의 종말에는 지극히 극심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종말의 징조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입니다. 사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서기도 했고, 매질을 당하기도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지막 때는 이보다 더 심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네 번째 징조는 가족간의 불화와 다툼입니다. 불신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족을 종교 재판에 회부하기도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징조들은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깨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박해와 순교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점을 기억하며, 또한 예수님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후회없이 감당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마지막 날을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며, 나의 개인적인 마지막 순간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 후회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²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으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³ 예수께서 감람 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⁵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⁶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⁷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

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⁹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¹⁰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¹¹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¹²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¹³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종말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들”(14절)이라는 말씀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 짓밟히고, 거기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은 다니엘 9장 27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전 168년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제단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 피를 뿌리는 등 성전을 모욕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종말에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우상숭배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도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궁중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 환난의 날을 줄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을 때만 박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나타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이적과 기사로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적과 기사만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인격이 변화되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일들에 대해 들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큰 영광 중에 심판의 권세를 가진 인자로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미래의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은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 기도 제목

세상의 유혹과 나의 죄성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쉬운 내 자신을 늘 살피고 점검하게 하옵소서.

¹⁴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¹⁵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¹⁶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¹⁷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rod ¹⁸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¹⁹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²⁰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²¹ 그 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²²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²³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²⁴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²⁵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²⁶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²⁷ 또 그 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깨어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 인자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시대가 어떠한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따라서 재림의 날을 구체적으로 못 박는 것은 성경적으로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 날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종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집을 떠난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불시에 찾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종들은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깨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의 임무와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종들은 깨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여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달란트와 때를 따라 부으시는 은혜와 예수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권세를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 힘써 전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였고, 성령강림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참된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 기도 제목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²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아나니 ²⁹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³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³¹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³²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³³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

라 ³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³⁵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³⁶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³⁷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여러 번 논쟁하였습니다. 논쟁이 진행될수록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는 높아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실추되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잘못을 트집잡아서 체포하여 죽일 수 있는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사람들이었건만,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모의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직책에 어울리지 않게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혜롭고 교활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하는 향유, 자신의 최고의 재산, 혹은 전 재산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 깨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용하지도, 도무지 이해도, 생각도 하지 않으려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았기에 그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이미 었질러진 일을 지적하면서 매우 아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눈총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9절).

>>> 기도 제목

주님, 내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피게 하옵소서.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흥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² 이르되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³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⁵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⁶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

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⁸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⁹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¹⁰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¹¹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양을 잡아 함께 나눠 먹는 전통을 지켰습니다(12절). 그런데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는 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양 대신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유월절 양 대신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순례객들로 붐비는 시기임에도 제자들이 만찬 장소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사랑방' (14절)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자신의 '큰 다락방' (15절)을 예수님의 것으로 내어준 무명의 한 집 주인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반면, 이 헌신의 반대편에서는 배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18절). 저마다 "나는 아니지요?"(19절)라며 부인하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두고 도망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린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큰 다락방을 내어준 한 사람처럼,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는 귀한 인생이 됩시다.

»» 기도 제목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¹²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¹³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¹⁴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¹⁵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¹⁶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

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¹⁷저물매 그 열둘을 데리시고 가서 ¹⁸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¹⁹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²⁰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²¹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겐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유월절이 되면 집안의 가장이 가족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겨 주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유월절의 의미를 선포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이 없는 이상한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유월절 양이신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22~25절). 빵을 “떼는”(22절) 행위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길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던 모세처럼(출 24:8), 예수님은 포도주를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새 포도주’(25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잔치입니다(25절). 하지만 잔치가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 실패를 반복할 것입니다(27절).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서서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이 다시 시작할 수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 4:10).

우리 역시 예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셨기에, 이만큼이라도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인내하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²²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²³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²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²⁵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²⁶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가니라 ²⁷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²⁸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²⁹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³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³¹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평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지만, 겟세마네의 기도는 약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변화 산에 동행했던 세 제자(막 9:2)를 가까이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싸여 죽을 지경이다”(34절)라고 말씀하실 만큼, 두렵고 외로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픈 솔직한 욕망까지도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께 쏟아놓으셨습니다(35절).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36절). 죽음이 다가오는 급박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36절)라고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 있지를”(37절) 못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일어나서 가자”(42절)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로 성큼성큼 나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십자가를 피해 뿔뿔이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려는 기도입니까? 내 뜻을 철회하려는 기도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 기도 제목

나의 필요만을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³²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³³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³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고 ³⁵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³⁶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³⁷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

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³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³⁹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⁴⁰ 다시 오사 보산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⁴¹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⁴²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신뢰했던 제자가 무장한 무리를 이끌고 왔다는 사실(43절)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에게 매우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피하거나 달아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잡히시면 백성의 반발로 소란이 일어날까봐 한적한 곳을 택하셨습니다(49절). 맞서 싸우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비폭력으로 폭력에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항할 것을 예상하고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44절)라고 말한 가롯 유다는 스승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그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은 흠이불만 뒤집어쓰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다가, 위기가 닥치자 흠이불을 내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51~52절). 전승에 따르면 그 청년은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폭력이 아닌 평화입니다. 이 역설적 진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진짜 수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 기도 제목

나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⁴³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⁴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 하였는지라 ⁴⁵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⁴⁶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⁴⁷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⁴⁸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⁴⁹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⁵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⁵¹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훌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⁵² 베 훌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유대 법률에 따르면, 의회는 동이 터야 개최할 수 있고 재판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한 재판을 소개합니다. 그곳에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몰래 숨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의회가 몰려와서 거짓 증거를 쏟아내었습니다(53~56절).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58절)는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로 말미암은 “영적 성전”을 가리킨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고소거리였습니다. 이렇게 억지와 기만이 난무하는 와중에, 단 하나의 진실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바로 그(그리스도)니라”(62절). 자기 정체를 알리지 말라고 항상 신신당부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거침없이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진실을 밝히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⁵³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⁵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피더라 ⁵⁵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⁵⁶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⁵⁷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 하여 이르되 ⁵⁸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할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⁵⁹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⁶⁰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

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한가 하되 ⁶¹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⁶²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⁶³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⁶⁴ 그 신성 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⁶⁵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숨어서 가슴 졸이며 기다리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다가왔습니다(66절). 그리고 베드로의 정체가 방금 잡혀 온 죄인의 동역자라고 밝혔습니다(67절). 하지만 그 순간 '거침없음'의 명수였던 베드로는 자기 정체를 부인했습니다(68절, 70~71절). 분명히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자신도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있는 베드로의 귀에 닭이 두 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72절). 베드로에게 남겨진 일은 이제 눈물과 회개와 회복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신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주님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한 날 되길 바랍니다.

>>> 기도 제목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경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⁶⁶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⁶⁷ 베드로가 불 쪼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⁶⁸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⁶⁹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⁷⁰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⁷¹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⁷²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밤새워 이루어진 불의한 재판은 새벽에 소집된 정식 의회를 통해 정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1절). 하지만 제아무리 유대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재판 결과를 집행할 권한은 갖지 못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로마 법정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3~5절).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막 14:61)라는 물음에만 대답하셨던 예수님은 이번에도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라는 물음에만 동의를 표하셨습니다(2절).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이자 왕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세력들과 혁명지도자 ‘바라바 예수’를 구해내려는 정치 세력들(6~8절)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할 최종 결정권자 빌라도는 결국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9~15절).

온 하늘과 땅의 권세자가 로마의 권세자에게 고난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승리합니다.

>>> 기도 제목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¹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²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³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⁴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⁵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⁶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⁷민란을 꾸미고 그 민란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⁸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⁹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¹⁰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¹¹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¹²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¹³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¹⁴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온 부대가 왕 앞에 집합했습니다. 왕이 용포를 입고, 왕관을 쓰자,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이들이 무릎 꿇어 경배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희롱과 학대 속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16~20절). 로마의 채찍질은 가혹하기로 악명이 높아 예수님은 이미 죽음 직전의 상태이셨지만, 십자가의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 고통을 덜어줄 마취제를 거부하셨습니다(23절). 그분의 온전한 감당이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나누어서 지고 가는 것만은 허락하셨습니다(21절).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높이 세워졌습니다(26절). 좌우편의 장관 대신 좌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의 왕위 등극에 함께하였고, 찬미 소리 대신 모욕 소리가 예수님의 그 현장을 뒤덮었습니다(27~32절).

십자가를 그저 혜택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고 갈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¹⁶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¹⁷ 예수
 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
 고 ¹⁸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
 할지어다 하고 ¹⁹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
 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²⁰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
 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²¹ 마침 알
 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
 우고 ²²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번역하
 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²³ 몰약을 탄 포도주
 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²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²⁵ 때가 제삼
 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²⁶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²⁷ 강도 들
 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²⁸ (없음)
²⁹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
 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를
 에 짓는다는 자여 ³⁰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
 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³¹ 그와 같이 대제사장
 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³²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
 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아모스 8장 9절의 말씀대로, 대낮의 흑암(33절)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인들 대신, 예수님이 이 흑암의 심판을 모조리 감당하셨습니다. 심판이 얼마나 참혹했던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34절)라고 부르짖을 정도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셨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버리셨다”라는 절규, 분리의 고통이 끼어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쏟아내야 할 절규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셨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일체의 도움을 거절하던 예수님은 포도주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36절). 마지막 승리의 함성을 지르시기 위해(37절) 목을 축이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요 19:30).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성전 휘장이 찢기는 것으로 상징되었습니다(38절). 찢긴 휘장을 지나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히 10:19~20).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으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³³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³⁴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³⁵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³⁶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³⁷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³⁸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³⁹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⁴⁰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⁴¹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⁴²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⁴³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 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⁴⁴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나 묻고 ⁴⁵백부장에게 알아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⁴⁶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⁴⁷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두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인들에겐 걱정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안식일이 되어 모든 일을 중단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시신에 방부 처리를 미처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향료를 준비해놓고 안식일 다음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1~2절).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하려던 '안식 후 첫날'이 '부활의 주일'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겐 또 하나의 걱정이 생겼습니다. 서두르다보니 '무덤의 돌'을 잊었던 것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3절). 그러나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자(5~7절), 여인들은 극도의 기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8절). 마가는 지금 우리가 대신 입을 열어 부활을 증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다시오심을 기다립시다.

>>> 기도 제목

부활의 주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²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³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지요 하더니 ⁴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⁵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⁶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⁷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

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⁸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⁹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¹⁰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먼저는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보고와 성경의 예언들을 듣고서도 확신하지 못한 채,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눅 24:13~35). 이들에게 주님은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들은 곧 부활하신 주님임을 확신했습니다(12~13절). 다음으로 예수님은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기를 주저했던 제자들의 의심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일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14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임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15절)는 명령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하여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라는 위임명령이었습니다. 이윽고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19절).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상의 왕으로 등극해 계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지금도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택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위임명령이기에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 기도 제목

주님의 이름을 개족과 이웃에게 언행일치의 삶으로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¹²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¹³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¹⁴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¹⁵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¹⁶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

람은 징계를 받으리라 ¹⁷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¹⁸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¹⁹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²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한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을 예고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곧 태어날 아기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의 의인이었지만, 아직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6~7절).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는 일은 부부 사이에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인 가브리엘 천사가 육체를 지닌 모습으로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들의 출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 사가랴는 제단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인 세례 요한의 출생과 세례 요한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갈망하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간의 침묵 시간 끝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그리고 기쁘신 뜻 안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간섭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5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8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9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10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출생이 예고된 세례 요한의 역할은 구약의 선지자와 비슷했습니다.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반복된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마 11:14, 17:10~13).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17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말 4:5~6). 이렇게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순종한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그녀는 자신의 임신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찬양했습니다(25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강하게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며 항상 그분의 뜻을 기다리며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도록 하옵소서.

¹⁶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¹⁷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¹⁸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¹⁹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²⁰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²¹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²²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²³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²⁴ 이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²⁵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의 출생을 예고했습니다. 앞선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는 노부부의 기도예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처녀에게 임신할 가능성을 한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 앞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는 달리,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예언 앞에 “주의 여종이오니”(38절)라는 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가리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지칭했습니다(28절). 주께서 그녀와 함께하신다는 위로는 그녀가 받게 될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특권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동시에 주어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위로의 말 앞에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어떠한 증거나 표적을 원하지 않고(18절), 조건 없는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가랴와 마리아 중에 누구의 예를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은 의심해 보는 사가랴입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마리아입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처녀가 임신한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도 순종했던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 어떤 상황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신뢰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 기도 제목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²⁵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
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²⁷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²⁸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
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²⁹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
찌함인가 생각하매 ³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³¹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
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³² 그가 큰 자
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
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³³ 영원히 야곱의 집

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
하리라 ³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
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³⁵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
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
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
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³⁶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³⁷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³⁸ 마리아가 이르
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마리아는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 앞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라며 믿음을 고백한 동시에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을 서둘러 방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실천으로 나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구릉 지대의 마을까지는 약 80~110km에 이르는 거리로써, 당시 약 3일 이상 걸리는 고된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자신과 함께 친척 엘리사벳에게서 동시에 일어남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39~42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그녀가 임신한 지 약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마리아의 방문 앞에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복된 소식에 감격하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약 3개월간 함께 있었습니다(눅 1:56).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과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역, 교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삶을 나누며 함께 신앙과 믿음생활을 완주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오로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³⁹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⁴⁰사기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⁴¹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 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⁴²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

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⁴³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⁴⁴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 놀았도다 ⁴⁵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즉 그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 나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세상에 행하시는 일을 노래하면서 그 은혜를 높이 찬양했습니다(삼상 2:1~10). 그녀가 찬양을 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통찰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깊이 이해하면서 찬양토록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 그리고 자비하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49~50절). 그녀는 능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깊게 고백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 속에 젊고 자신밖에 모르는 일상적인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도우사”(54절)라는 구약 선지자의 목소리로 구원, 자유, 정의에 대한 구약의 놀라운 주제들이 찬양에 담겨 모두 드러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정치적 독립과 권세)과는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뜻을 찬양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 그 너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관점,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기대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계획 하심과 주권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⁴⁶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⁴⁷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⁴⁸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
 리로다 ⁴⁹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
 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⁵⁰ 긍휼하심이 두려
 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⁵¹ 그의 팔
 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을 흠으셨고 ⁵²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
 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⁵³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⁵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
 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⁵⁵ 우리 조상
 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
 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⁵⁶ 마리아
 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의 이름을 '요한' 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천사의 말을 불신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가 아닌 요한으로 지으면서(59~60절),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몸소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순종함을 통해 노년기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고, 할례 의식을 통해 천사가 일러 준 대로 아이의 이름을 공표했습니다(61~63절). 이렇게 요한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부친이나 조부의 이름을 본 딴 '사가랴'가 아닌, '요한'이라는 뜻밖의 아들의 이름을 발표하자 친척들은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계의 누구도 가져본 적이 없는 이름을 선택한 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글을 써서 자신 또한 아내와 의견을 같이한다는 것을 알렸고, 아이의 이름을 '요한' 이라고 공표했습니다(63절). 이 순간 사가랴의 말랐던 입이 열렸고, 이윽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64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고집을 피우지 않는 겸손도 함께 간절히 구해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내 생각과 뜻보다 더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⁵⁷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⁵⁸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⁵⁹ 팔 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⁶⁰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⁶¹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하고 ⁶²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

려 하는가 물으니 ⁶³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⁶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⁶⁵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⁶⁶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몇 달간 말을 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내뱉은 첫 마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곧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68~79절). 사가랴의 고백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가랴와 마리아의 찬양 속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고백되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73절). 이 언약은 원수들이 멸망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압제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이 고백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강조하는 사가랴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수들을 물리친 부활의 승리를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죄 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67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68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2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74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76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77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80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고, 사람들에게 환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호적을 신고하라는 로마의 명령 앞에 출산을 앞두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약 110~130km에 이르는 먼 거리였습니다. 만삭의 마리아가 이 험난한 여정에 왜 동참했는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추측전대, 혼전 임신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소문에 시달린 마리아는 항상 요셉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동참했을 것입니다(미 5:2).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깨끗이 씻어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7절). 이렇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난하고 비천한 환경에서 종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¹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²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³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⁵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⁶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⁷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눅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⁸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⁹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¹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¹¹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이 방문하여 경배했습니다. 목자는 당시 존귀한 직업이기보다는 일반적이고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방문한 것은 예수님은 교만한 권력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들 가운데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비천하고 하위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 주셨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목자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로 사는 다윗을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로 부르셔서 통치케 하셨습니다. 이 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목자에게 이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당시 '구주'라는 명칭은 위대한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들이나 섬기는 신들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명칭을 메시아이신 예수를 소개하면서 목자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 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확증케 했습니다(눅 2:11).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들 앞에 소개된 예수님, 즉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¹²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눕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¹³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¹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¹⁵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¹⁶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

인 아기를 찾아서 ¹⁷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¹⁸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¹⁹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²⁰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²¹ 할례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성전에서 시므온이 예수님께 나아와 '구주'로 예언했습니다(30절). 안나도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눅 2:36). 그들의 예언과 찬양은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이자 구원자이시고, 주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의 할례를 위해 성전을 찾았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할례를 행한 뒤에, 마리아와 함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또다시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을 만났습니다.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주신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26절) 이들의 만남을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므온의 모습은 빛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32절).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본 시므온의 고백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승리를 맞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 기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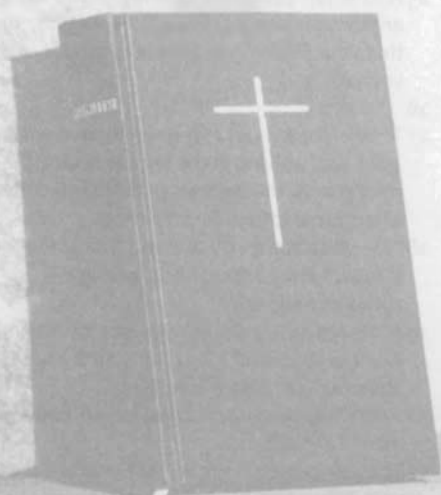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²²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²³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²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²⁵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²⁶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²⁷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²⁸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²⁹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³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³¹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³²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³³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공부

영어본문말씀

창 1:1-5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nd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and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Night.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irst day."

12월 1일 목요일

Mark 11:1~11

- 1 As they approached Jerusalem and came to Bethphage and Bethany at the Mount of Olives, Jesus sent two of his disciples,
- 2 saying to them,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just as you enter it, you will find a colt tied there, which no one has ever ridden. Untie it and bring it here.
- 3 If anyone asks you, 'Why are you doing this?' tell him, 'The Lord needs it and will send it back here shortly.'"
- 4 They went and found a colt outside in the street, tied at a doorway. As they untied it,
- 5 some people standing there asked, "What are you doing, untying that colt?"
- 6 They answered as Jesus had told them to, and the people let them go.
- 7 When they brought the colt to Jesus and threw their cloaks over it, he sat on it.
- 8 Many people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ile others spread branches they had cut in the fields.
- 9 Those who went ahead and those who followed shouted,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 10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 11 Jesus entered Jerusalem and went to the temple. He looked around at everything, but since it was already late, he went out to Bethany with the Twelve.

12월 2일 금요일

Mark 11:12~19

- 12 The next day as they were leaving Bethany, Jesus was hungry.
- 13 Seeing in the distance a fig tree in leaf, he went to find out if it had any fruit. When he reached it, he found nothing but leaves, because it was not the season for figs.
- 14 Then he said to the tree, "May no one ever eat fruit from you again." And his disciples heard him say it.
- 15 On reaching Jerusalem, Jesus entered the temple area and began driving out those who were buying and selling ther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the benches of those selling

doves,

- 16 and would not allow anyone to carry merchandise through the temple courts.
- 17 And as he taught them, he said, "Is it not written: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 18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heard this and began looking for a way to kill him, for they feared him, because the whole crowd was amazed at his teaching.
- 19 When evening came, they went out of the city.

12월 3일 토요일

Mark 11:20~33

- 20 In the morning, as they went along, they saw the fig tree withered from the roots.
- 21 Peter remembered and said to Jesus, "Rabbi, look! The fig tree you cursed has withered!"
- 22 "Have faith in God," Jesus answered.
- 23 "I tell you the truth, if anyone says to this mountain, 'Go, throw yourself into the sea,' and does not doubt in his heart but believes that what he says will happen, it will be done for him.
- 24 Therefore I tell you,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 25 And when you stand praying, if you hold anything against anyone, forgive him, so that your Father in heaven may forgive you your sins."
- 26
- 27 They arrived again in Jerusalem, and while Jesus was walking in the temple courts, the chief priest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came to him.
- 28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they asked. "And who gave you authority to do this?"
- 29 Jesus replied, "I will ask you one question. Answer me, and I will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 30 John's baptism--was it from heaven, or from men? Tell me!"
- 31 They discussed it among themselves and said,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ask,

'Then why didn't you believe him?'

- 32 But if we say, 'From men'...." (They feared the people, for everyone held that John really was a prophet.)
- 33 So they answered Jesus, "We don't know." Jesus said,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12월 4일 주일

Mark 12:1~12

- 1 He then began to speak to them in parables: "A man planted a vineyard. He put a wall around it, dug a pit for the winepress and built a watchtower. Then he rented the vineyard to some farmers and went away on a journey.
- 2 At harvest time he sent a servant to the tenants to collect from them some of the fruit of the vineyard.
- 3 But they seized him,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 4 Then he sent another servant to them; they struck this man on the head and treated him shamefully.
- 5 He sent still another, and that one they killed. He sent many others; some of them they beat, others they killed.
- 6 "He had one left to send, a son, whom he loved. He sent him last of all, saying, 'They will respect my son.'
- 7 "But the tenants said to one another, 'This is the heir. Come, let's kill him, and the inheritance will be ours.'
- 8 So they took him and killed him, and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 9 "What then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He will come and kill those tenants and give the vineyard to others.
- 10 Haven't you read this scripture: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apstone;
- 11 the Lord has done this, an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 12 Then they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because they knew he had spoken the parable against them. But they were afraid of the crowd; so they left him and went away.

12월 5일 월요일

Mark 12:13~27

- 13 Later they sent some of the Pharisees and Herodians to Jesus to catch him in his words.
- 14 They came to him and said, "Teacher, we know you are a man of integrity. You aren't swayed by men, because you pay no attention to who they are; but you teach the way of God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Is it right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 15 Should we pay or shouldn't we?" But Jesus knew their hypocrisy. "Why are you trying to trap me?" he asked. "Bring me a denarius and let me look at it."
- 16 They brought the coin, and he asked them, "Whose portrait is this? And whose inscription?" "Caesar's," they replied.
- 17 Then Jesus said to them,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And they were amazed at him.
- 18 Then the Sadducees, who say there is no resurrection, came to him with a question.
- 19 "Teacher," they said, "Moses wrote for us that if a man's brother dies and leaves a wife but no children, the man must marry the widow and have children for his brother.
- 20 Now there were seven brothers. The first one married and died without leaving any children.
- 21 The second one married the widow, but he also died, leaving no child. It was the same with the third.
- 22 In fact, none of the seven left any children. Last of all, the woman died too.
- 23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the seven were married to her?"
- 24 Jesus replied, "Are you not in error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or the power of God?
- 25 When the dead rise, they will neither marry nor be given in marriage; they will be like the angels in heaven.
- 26 Now about the dead rising--have you not read in the book of Moses, in the account of the bush, how God said to him,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 27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You are badly mistaken!"

12월 6일 화요일

Mark 12:28~44

28 One of the teachers of the law came and heard them debating. Noticing that Jesus had given them a good answer, he asked him, "Of all the commandment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29 "The most important one," answered Jesus, "is this: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30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31 The second is thi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re is no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32 "Well said, teacher," the man replied. "You are right in saying that God is one and there is no other but him."

33 To love him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understanding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s more important than all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34 When Jesus saw that he had answered wisely, he said to him,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And from then on no one dared ask him any more questions.

35 While Jesus was teaching in the temple courts, he asked, "How is it that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the Christ is the son of David?"

36 David himself, speaking by the Holy Spirit, declared: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put your enemies under your feet.'"

37 David himself calls him 'Lord.' How then can he be his son?" The large crowd listened to him with delight.

38 As he taught, Jesus said, "Watch out for the teachers of the law. They like to walk around in flowing robes and be greeted in the marketplaces,

39 and have the most importan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places of honor at banquets.

40 They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show make lengthy prayers. Such men will be punished most severely."

41 Jesus sat down opposite the place where the offerings were put and watched the crowd putting their money into the temple treasury. Many rich people threw in large amounts.

42 But a poor widow came and put in two very small copper coins, worth only a fraction of a penny.

43 Calling his disciples to him, Jesus said, "I tell you the truth, this poor widow has put more into the treasury than all the others.

44 They all gave out of their wealth;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everything--all she had to live on."

12월 7일 수요일

Mark 13:1~13

1 As he was leaving the temple,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Look, Teacher! What massive stones! What magnificent buildings!"

2 "Do you see all these great buildings?" replied Jesus. "Not one stone here will be left on another; every one will be thrown down."

3 As Jesus was sitting on the Mount of Olives opposite the temple, Peter, James, John and Andrew asked him privately,

4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happen? And what will be the sign that they are all about to be fulfilled?"

5 Jesus said to them: "Watch out that no one deceives you.

6 Many will come in my name, claiming, 'I am he,' and will deceive many.

7 When you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do not be alarmed. Such things must happen, but the end is still to come.

8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will be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and famines.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9 "You must be on your guard. You will be handed over to the local councils and flogged in the synagogues. On account of me you will stand before governors and kings as witnesses to them.

10 And the gospel must fir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11 Whenever you are arrested and brought to

trial, do not worry beforehand about what to say. Just say whatever is given you at the time, for it is not you speaking, but the Holy Spirit.

- 12 "Brother will betray brother to death, and a father his child. Children will rebel against their parents and have them put to death.
13 All men will hate you because of me, but h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12월 8일 목요일

Mark 13:14~27

- 14 "When you see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standing where it does not belong--let the reader understand--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15 Let no one on the roof of his house go down or enter the house to take anything out.
16 Let no one in the field go back to get his cloak.
17 How dreadful it will be in those days for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18 Pray that this will not take place in winter,
19 because those will be days of distress unequaled from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world, until now--and never to be equaled again.
20 If the Lord had not cut short those days, no one would survive. But for the sake of the elect, whom he has chosen, he has shortened them.
21 At that time if anyone says to you, 'Look, here is the Christ!' or, 'Look, there he is!' do not believe it.
22 For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will appear and perform signs and miracles to deceive the elect--if that were possible.
23 So be on your guard; I have told you everything ahead of time.
24 "But in those days, following that distress, 'the sun will be darkened, and the moon will not give its light;
25 the stars will fall from the sky, and the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26 "At that time men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clouds with great power and glory.

27 And he will send his angels and ga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the ends of the heavens.

12월 9일 금요일

Mark 13:28~37

- 28 "Now learn this lesson from the fig tree: As soon as its twigs get tender and its leaves come out, you know that summer is near.
29 Even so, when you see these things happening, you know that it is near, right at the door.
30 I tell you the truth, this generation will certainly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have happened.
31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32 "No one knows about that day or hour,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nor the Son, but only the Father.
33 Be on guard! Be alert! You do not know when that time will come.
34 It's like a man going away: He leaves his house and puts his servants in charge, each with his assigned task, and tells the one at the door to keep watch.
35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when the owner of the house will come back--whether in the evening, or at midnight, or when the rooster crows, or at dawn.
36 If he comes suddenly, do not let him find you sleeping.
37 What I say to you, I say to everyone: 'Watch!'

12월 10일 토요일

Mark 14:1~11

- 1 Now the Passover an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ere only two days away,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ere looking for some sly way to arrest Jesus and kill him.
2 "But not during the Feast," they said, "or the people may riot."
3 While he was in Bethany, reclining at the table in the home of a man known as Simon the Leper, a woman came with an alabaster jar of very expensive perfume, made of pure

nard. She broke the jar and poured the perfume on his head.

4 Some of those present were saying indignantly to one another, "Why this waste of perfume?"

5 It could have been sold for more than a year's wages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And they rebuked her harshly.

6 "Leave her alone," said Jesus. "Why are you bothering her?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7 The poor you will always have with you, and you can help them any time you want.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8 She did what she could. She poured perfume on my body beforehand to prepare for my burial.

9 I tell you the truth, wherever the gospel is preached throughout th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10 Then Judas Iscariot, one of the Twelve, went to the chief priests to betray Jesus to them.

11 They were delighted to hear this and promised to give him money. So he watched for an opportunity to hand him over.

12월 11일 주일

Mark 14:12~21

12 On the first day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hen it was customary to sacrifice the Passover lamb, Jesus' disciples asked him, "Where do you want us to go and make preparations for you to eat the Passover?"

13 So he sent two of his disciples, telling them, "Go into the city, and a man carrying a jar of water will meet you. Follow him.

14 Say to the owner of the house he enters, 'The Teacher asks: Where is my guest room, where I may eat the Passover with my disciples?'

15 He will show you a large upper room, furnished and ready. Make preparations for us there."

16 The disciples left, went into the city and found things just as Jesus had told them. So

they prepared the Passover.

17 When evening came, Jesus arrived with the Twelve.

18 While they were reclining at the table eating, he said, "I tell you the truth, one of you will betray me--one who is eating with me."

19 They were saddened, and one by one they said to him, "Surely not I?"

20 "It is one of the Twelve," he replied, "one who dips bread into the bowl with me.

21 The Son of Man will go just as it is written about him. But woe to that man who betrays the Son of Man! It would be better for him if he had not been born."

12월 12일 월요일

Mark 14:22~31

22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it; this is my body."

23 Then he took the cup, gave thanks and offered it to them, and they all drank from it.

24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he said to them.

25 "I tell you the truth, I will not drink again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anew in the kingdom of God."

26 When they had sung a hymn, they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27 "You will all fall away," Jesus told them, "for it is written: 'I will 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will be scattered.'

28 But after I have risen, I will go ahead of you into Galilee."

29 Peter declared, "Even if all fall away, I will not."

30 "I tell you the truth," Jesus answered, "today--yes, tonight--before the rooster crows twice you yourself will disown me three times."

31 But Peter insisted emphatically,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ever disown you." And all the others said the same.

12월 13일 화요일

Mark 14:32~42

32 They went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and Jesus said to his disciples, "Sit here while

I pray."

33 He took Peter, James and John along with him, and he began to be deeply distressed and troubled.

34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he said to them. "Stay here and keep watch."

35 Going a little farther, he fell to the ground and prayed that if possible the hour might pass from him.

36 "Abba, Father," he said, "everything is possible for you.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what I will, but what you will."

37 Then he returned to his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Simon," he said to Peter, "are you asleep? Could you not keep watch for one hour?"

38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39 Once more he went away and prayed the same thing.

40 When he came back, he again found them sleeping, because their eyes were heavy. They did not know what to say to him.

41 Returning the third time, he said to them,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Enough! The hour has come. Look, the Son of Man is betrayed into the hands of sinners.

42 Rise! Let us go! Here comes my betrayer!"

12월 14일 수요일

Mark 14:43~52

43 Just as he was speaking, Judas, one of the Twelve, appeared. With him was a crowd armed with swords and clubs, sent from the chief priest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44 Now the betrayer had arranged a signal with them: "The one I kiss is the man; arrest him and lead him away under guard."

45 Going at once to Jesus, Judas said, "Rabbi!" and kissed him.

46 The men seized Jesus and arrested him.

47 Then one of those standing near drew his sword and struck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cutting off his ear.

48 "Am I leading a rebellion," said Jesus, "that you have come out with swords and clubs

to capture me?"

49 Every day I was with you, teaching in the temple courts, and you did not arrest me. But the Scriptures must be fulfilled."

50 Then everyone deserted him and fled.

51 A young man, wearing nothing but a linen garment, was following Jesus. When they seized him,

52 he fled naked, leaving his garment behind.

12월 15일 목요일

Mark 14:53~65

53 They took Jesus to the high priest, and all the chief priests, elders and teachers of the law came together.

54 Peter followed him at a distance, right into the courtyard of the high priest. There he sat with the guards and warmed himself at the fire.

55 The chief priests and the whole Sanhedrin were looking for evidence against Jesus so that they could put him to death, but they did not find any.

56 Many testified falsely against him, but their statements did not agree.

57 Then some stood up and gave this false testimony against him:

58 "We heard him say, 'I will destroy this man-made temple and in three days will build another, not made by man.'"

59 Yet even then their testimony did not agree.

60 Then the high priest stood up before them and asked Jesus, "Are you not going to answer? What is this testimony that these men are bringing against you?"

61 But Jesus remained silent and gave no answer. Again the high priest asked him,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One?"

62 "I am," said Jesus. "And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Mighty One and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63 The high priest tore his clothes. "Why do we need any more witnesses?" he asked.

64 "You have heard the blasphemy. What do you think?" They all condemned him as worthy of death.

65 Then some began to spit at him; they

blindfolded him, struck him with their fists, and said, "Prophecy!" And the guards took him and beat him.

12월 16일 금요일

Mark 14:66~72

66 While Peter was below in the courtyard, one of the servant girls of the high priest came by.

67 When she saw Peter warming himself, she looked closely at him. "You also were with that Nazarene, Jesus," she said.

68 But he denied it. "I don't know or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he said, and went out into the entryway.

69 When the servant girl saw him there, she said again to those standing around, "This fellow is one of them."

70 Again he denied it. After a little while, those standing near said to Peter, "Surely you are one of them, for you are a Galilean."

71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on himself, and he swore to them, "I don't know this man you're talking about."

72 Immediately the rooster crowed the second time.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Jesus had spoken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wice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And he broke down and wept.

12월 17일 토요일

Mark 15:1~15

1 Very early in the morning, the chief priests, with the elder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whole Sanhedrin, reached a decision. They bound Jesus, led him away and handed him over to Pilate.

2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asked Pilate. "Yes, it is as you say," Jesus replied.

3 The chief priests accused him of many things.

4 So again Pilate asked him, "Aren't you going to answer? See how many things they are accusing you of."

5 But Jesus still made no reply, and Pilate was amazed.

6 Now it was the custom at the Feast to release a prisoner whom the people requested.

7 A man called Barabbas was in prison with the insurrectionists who had committed murder in the uprising.

8 The crowd came up and asked Pilate to do for them what he usually did.

9 "Do you want me to release to you the king of the Jews?" asked Pilate,

10 knowing it was out of envy that the chief priests had handed Jesus over to him.

11 But the chief priests stirred up the crowd to have Pilate release Barabbas instead.

12 "What shall I do, then, with the one you call the king of the Jews?" Pilate asked them.

13 "Crucify him!" they shouted.

14 "Why? What crime has he committed?" asked Pilate. But they shouted all the louder, "Crucify him!"

15 Wanting to satisfy the crowd, Pilate released Barabbas to them. He had Jesus flogged, and handed him over to be crucified.

12월 18일 주일

Mark 15:16~32

16 The soldiers led Jesus away into the palace (that is, the Praetorium) and called together the whole company of soldiers.

17 They put a purple robe on him, then twisted together a crown of thorns and set it on him.

18 And they began to call out to him, "Hail, king of the Jews!"

19 Again and again they struck him on the head with a staff and spit on him. Falling on their knees, they paid homage to him.

20 And when they had mocked him, they took off the purple robe and put his own clothes on him. Then they led him out to crucify him.

21 A certain man from Cyrene, Simon, the father of Alexander and Rufus, was passing by on his way in from the country, and they forced him to carry the cross.

22 They brought Jesus to the place called Golgotha (which means The Place of the Skull).

23 Then they offered him wine mixed with myrrh, but he did not take it.

24 And they crucified him. Dividing up his clothes, they cast lots to see what each would get.

25 It was the third hour when they crucified him.

26 The written notice of the charge against him read: THE KING OF THE JEWS.

27 They crucified two robbers with him, one on his right and one on his left.

28

29 Those who passed by hurled insults at him, shaking their heads and saying, "So! You who are going to destroy the temple and build it in three days,

30 come down from the cross and save yourself!"

31 In the same way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mocked him among themselves. "He saved others," they said, "but he can't save himself!

32 Let this Christ, this King of Israel, come down now from the cross, that we may see and believe." Those crucified with him also heaped insults on him.

12월 19일 월요일

Mark 15:33~47

33 At the sixth hour darkness came over the whole land until the ninth hour.

34 And at the ninth hour Jesus cried out in a loud voice, "Eloi, Eloi, lama sabachthani?"--which mean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35 When some of those standing near heard this, they said, "Listen, he's calling Elijah."

36 One man ran, filled a sponge with wine vinegar, put it on a stick, and offered it to Jesus to drink. "Now leave him alone. Let's see if Elijah comes to take him down," he said.

37 With a loud cry, Jesus breathed his last.

38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39 And when the centurion, who stood there in front of Jesus, heard his cry and saw how he died, he said, "Sure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

40 Some women were watching from a distance. Among them were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the younger and of Joseph, and Salome.

41 In Galilee these women had followed him

and cared for his needs. Many other women who had come up with him to Jerusalem were also there.

42 It was Preparation Day (that is, the day before the Sabbath). So as evening approached,

43 Joseph of Arimathea, a prominent member of the Council, who was himself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went boldly to Pilate and asked for Jesus' body.

44 Pilate was surprised to hear that he was already dead. Summoning the centurion, he asked him if Jesus had already died.

45 When he learned from the centurion that it was so, he gave the body to Joseph.

46 So Joseph bought some linen cloth, took down the body, wrapped it in the linen, and placed it in a tomb cut out of rock. Then he rolled a stone against the entrance of the tomb.

47 Mary Magdalene and Mary the mother of Joseph saw where he was laid.

12월 20일 화요일

Mark 16:1~11

1 When the Sabbath was over,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Salome bought spices so that they might go to anoint Jesus' body.

2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just after sunrise, they were on their way to the tomb

3 and they asked each other, "Who will roll the stone away from the entrance of the tomb?"

4 But when they looked up, they saw that the stone, which was very large, had been rolled away.

5 As they entered the tomb, they saw a young man dressed in a white robe sitting on the right side, and they were alarmed.

6 "Don't be alarmed," he said. "You are looking for Jesus the Nazarene, who was crucified. He has risen! He is not here. See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

7 But go,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He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just as he told you.'"

8 Trembling and bewildered, the women went out and fled from the tomb. They said

nothing to anyone, because they were afraid.

- 9 When Jesus rose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he appeared first to Mary Magdalene, out of whom he had driven seven demons.

10 She went and told those who had been with him and who were mourning and weeping.

- 11 When they heard that Jesus was alive and that she had seen him, they did not believe it.

12월 21일 수요일

Mark 16:12~20

12 Afterward Jesus appeared in a different form to two of them while they were walking in the country.

- 13 These returned and reported it to the rest; but they did not believe them either.

14 Later Jesus appeared to the Eleven as they were eating; he rebuked them for their lack of faith and their stubborn refusal to believe those who had seen him after he had risen.

- 15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16 Whoever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will be condemned.

- 17 And these signs will accompany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drive out demons; they will speak in new tongues;

18 they will pick up snakes with their hands; and when they drink deadly poison, it will not hurt them at all; they will place their hands on sick people, and they will get well."

- 19 After the Lord Jesus had spoken to them, he was taken up into heaven and he sat at the right hand of God.

20 Then the disciples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and the Lord worked with them and confirmed his word by the signs that accompanied it.

fulfilled among us,

- 2 just as they were handed down to us by those who from the first were eyewitnesses and servants of the word.

3 Therefore, since I myself have carefully investigated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it seemed good also to me to write an orderly account for you, most excellent Theophilus,

- 4 so that you may know the certainty of the things you have been taught.

5 In the time of Herod king of Judea there was a priest named Zechariah, who belonged to the priestly division of Abijah; his wife Elizabeth was also a descendant of Aaron.

- 6 Both of them were upright in the sight of God, observing all the Lord's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blamelessly.

7 But they had no children, because Elizabeth was barren; and they were both well along in years.

- 8 Once when Zechariah's division was on duty and he was serving as priest before God,

9 he was chosen by lot,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priesthood, to go into the temple of the Lord and burn incense.

- 10 And when the time for the burning of incense came, all the assembled worshippers were praying outside.

11 Then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standing at the right side of the altar of incense.

- 12 When Zechariah saw him, he was startled and was gripped with fear.

13 But the angel said to him: "Do not be afraid, Zechariah; your prayer has been heard.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ohn.

- 14 He will be a joy and delight to you, and many will rejoice because of his birth,

15 for he will b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He is never to take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and he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even from birth.

12월 22일 목요일

Luke 1:1~15

- 1 Many have undertaken to draw up an account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12월 23일 금요일

Luke 1:16~25

- 16 Many of the people of Israel will he bring back to the Lord their God.

17 And he will go on before the Lord,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ir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wisdom of the righteous--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18 Zechariah asked the angel, "How can I be sure of this? I am an old man and my wife is well along in years."

19 The angel answered, "I am Gabriel. I stand in the presence of God, and I have been sent to speak to you and to tell you this good news."

20 And now you will be silent and not able to speak until the day this happens, because you did not believe my words, which will come true at their proper time."

21 Meanwhile, the people were waiting for Zechariah and wondering why he stayed so long in the temple.

22 When he came out, he could not speak to them. They realized he had seen a vision in the temple, for he kept making signs to them but remained unable to speak.

23 When his time of service was completed, he returned home.

24 After this his wife Elizabeth became pregnant and for five months remained in seclusion.

25 "The Lord has done this for me," she said. "In these days he has shown his favor and taken away my disgrace among the people."

12월 24일 토요일

Luke 1:26~38

26 In the sixth month,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Nazareth, a town in Galilee,

27 to a virgin pledged to be married to a man named Joseph, a descendant of David. The virgin's name was Mary.

28 The angel went to her and said,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29 Mary was greatly troubled at his words and wondered what kind of greeting this might be.

30 But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31 You will be with child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32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33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his kingdom will never end."

34 "How will this be," Mary asked the angel, "since I am a virgin?"

35 The angel answered,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So the holy one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36 Even Elizabeth your relative is going to have a child in her old age, and she who was said to be barren is in her sixth month.

37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38 "I am the Lord's servant," Mary answered.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Then the angel left her.

12월 25일 주일

Luke 1:39~45

39 At that time Mary got ready and hurried to a town in the hill country of Judea,

40 where she entered Zechariah's home and greeted Elizabeth.

41 When Elizabeth heard Mary's greeting, the baby leaped in her womb, and Elizabet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42 In a loud voice she exclaimed: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child you will bear!

43 But why am I so favored, that the mother of my Lord should come to me?

44 As soon as the sound of your greeting reached my ears, the baby in my womb leaped for joy.

45 Blessed is she who has believed that what the Lord has said to her will be accomplished!"

12월 26일 월요일

Luke 1:46~56

46 And Mary said: "My soul glorifies the Lord

47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48 for he has been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49 for the Mighty One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holy is his name.

50 His mercy extends to those who fear him,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51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ose who are proud in their inmost thoughts.

52 He has brought down rulers from their thrones but has lifted up the humble.

53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but has sent the rich away empty.

54 He has helped his servant Israel, remembering to be merciful

55 to Abraham and his descendants forever, even as he said to our fathers."

56 Mary stayed with Elizabeth for about three months and then returned home.

12월 27일 화요일

Luke 1:57~66

57 When it was time for Elizabeth to have her baby, she gave birth to a son.

58 Her neighbors and relatives heard that the Lord had shown her great mercy, and they shared her joy.

59 On the eighth day they came to circumcise the child, and they were going to name him after his father Zechariah,

60 but his mother spoke up and said, "No! He is to be called John."

61 They said to her, "There is no one among your relatives who has that name."

62 Then they made signs to his father, to find out what he would like to name the child.

63 He asked for a writing tablet, and to everyone's astonishment he wrote, "His name is John."

64 Immediately his mouth was opened and his tongue was loosed, and he began to speak, praising God.

65 The neighbors were all filled with awe, and throughout the hill country of Judea people were talking about all these things.

66 Everyone who heard this wondered about it, asking, "What then is this child going to be?" For the Lord's hand was with him.

12월 28일 수요일

Luke 1:67~80

67 His father Zecharia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prophesied:

68 "Praise be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because he has come and has redeemed his people.

69 He has raised up a horn of salvation for us in the house of his servant David

70 (as he said through his holy prophets of long ago),

71 salvation from our enemies and from the hand of all who hate us--

72 to show mercy to our fathers and to remember his holy covenant,

73 the oath he swore to our father Abraham:

74 to rescue us from the hand of our enemies, and to enable us to serve him without fear

75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before him all our days.

76 And you, my child, will be called a prophet of the Most High; for you will go on before the Lord to prepare the way for him,

77 to give his people the knowledge of salvation through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78 because of the tender mercy of our God, by which the rising sun will come to us from heaven

79 to shine on those living in darkness and in the shadow of death, to guide our feet into the path of peace."

80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in spirit; and he lived in the desert until he appeared publicly to Israel.

12월 29일 목요일

Luke 2:1~11

1 In those days Caesar Augustus issued a decree that a census should be taken of the entire Roman world.

2 (This was the first census that took place while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

3 And everyone went to his own town to register.

4 So Joseph also went up from th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to Judea, to Bethlehem the town of David, because he belonged to the house and line of David.

- 5 He went there to register with Mary, who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him and was expecting a child.
- 6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
- 7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a son.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place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 8 And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
- 9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
- 10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 11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12월 30일 금요일

Luke 2:12~21

- 12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 13 Suddenly a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 appeared with the angel, praising God and saying,
- 14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 15 When the angels had left them and gone into heaven,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s go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which the Lord has told us about."
- 16 So they hurried off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y, who was lying in the manger.
- 17 When they had seen him, they spread the word concerning what had been told them about this child,
- 18 and all who heard it were amazed at what the shepherds said to them.
- 19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 20 The shepherds returned,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e things they had heard and seen, which were just as they

had been told.

- 21 On the eighth day, when it was time to circumcise him, he was named Jesus, the name the angel had given him before he had been conceived.

12월 31일 토요일

Luke 2:22~33

- 22 When the time of their purification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had been completed, Joseph and Mary took him to Jerusalem to present him to the Lord
- 23 (as it is written in the Law of the Lord, "Every firstborn male is to be consecrated to the Lord"),
- 24 and to offer a sacrifice in keeping with what is said in the Law of the Lord: "a pair of doves or two young pigeons."
- 25 Now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called Simeon, who was righteous and devout. He was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and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 26 It had been revealed to him by the Holy Spirit that he would not die before he had seen the Lord's Christ.
- 27 Moved by the Spirit, he went into the temple courts. When the parents brought in the child Jesus to do for him what the custom of the Law required,
- 28 Simeon took him in his arms and praised God, saying:
- 29 "Sovereign Lord, as you have promised, you now dismiss your servant in peace.
- 30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 31 which you have prepared in the sight of all people,
- 32 a light for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for glory to your people Israel."
- 33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marveled at what was said about him.

— —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6년 12월

Copyright© 2016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편집인 | 권명옥, 집필진 | 최광훈 김정신 김원기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품]